

February
2003

2월

이달의 역사

- 1991 재야민주연합 이부영 등 68명, 민주당과 통합선언
- 1989 대학생과의 전면허용
- 1979 한-미 정상회담, 주한미군철수계획을 없앴던 일로 함
- 1968 미국 북한 푸에블로호 사건 비밀협상
- 1956 북한 적십자, 국제적십자연맹에 가입

- 1990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3당 합당, 민주자유당 창당
- 1989 화염병 사용 처벌법 국회통과
- 1967 한미행정협정발효
- 1945 대한민국임시정부, 일본 및 독일에 대하여 선전포고

- 1996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이상재 허문도 권정달 등 6명을 내란혐의 고소
- 1991 수서특혜관련 이원배의원 등 구속
- 1959 카스트로, 쿠바수상에 취임
- 1958 KNA 여객기 납북, 탑승객 34명 중 26명은 3월 6일 귀환
- 1951 매달 25일을 국난극복일로 지정

- 1998 검찰, DJ비자금 무혐의 처리
- 1991 태극무혈 쿠데타
- 1991 수서비리 재수사 요구*
- 1988 제29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 7연패
- 1985 전두환, 민정당 대표위원에 노태우 임명
- 1971 대학교육을 필수로 하는 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 1949 서울시경, 남로당원 및 민애청원 1백여명 검거

- 1991 남현진 열사 추모일*
- 1989 KAL기 폭파범 김현희 살인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
- 1962 미국 케네디 대통령, 쿠바와 무역 전면금지 발표
- 1950 월남 캄보디아 라오스 정식 독립

- 1964 국가안전보장회의 발족
- 1962 국가재건최고회의, 국토건설단 창단
- 1950 유네스코 가입
- 1948 김구, '3천만 동포에 읍소한다'는 남한단정 수립반대 성명발표

- 1989 북한 작가중앙동맹위원회, 민족문학작가회의에 작가회담 제의
- 1989 농약, 아동용그림책 등 1,980개 품목 수입자유화 결정
- 1979 중국군, 베트남 전면 침공
- 1960 김포공항 청사 준공
- 1954 3군합동참모회의 설치
- 1946 인도네시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 선언

- 1998 최명아 열사 추모일*
- 1998 김훈 중위 사망사건
- 1991 걸프전쟁에서 다국적군, 지상전 돌입
- 1977 북한, 김정일 후계자 확정
- 1976 소아비협회, 지체부자유자 대학진학 제한에 대한 규탄대회
- 1969 검찰, 동베를린사건 관련 작곡가 윤이상 형집행정지로 석방

- 1991 지구 온난화 방지 위한 첫 국제회의 개최
- 1989 함석헌선생 추모일*

- 1993 양심수 석방과 해직교사 원상복직 기도회
- 198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 의결
- 1971 미영수 등 65개국 해저핵실험 금지조약 조인
- 1961 민족일보 창간
- 1951 거창양민학살사건 발생
- 1947 공민증제 실시
- 1940 일제, 한국인에 창씨개명 강제 실시

- 1998 북한 김용수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남측과 대화용의발표
- 1994 56개 공기업 민영화계획 발표
- 1989 정상을 열사 추모일*
- 1963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민정 불참 발표
- 1952 거제도 포로수용소 폭동

- 1998 김대중, 제15대 대통령 취임
- 1994 북미 뉴욕회담 타결
- 1993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
- 1988 노태우, 제13대 대통령 취임
- 1986 필리핀 대통령 미르코스 미국망령, 코리아아키노 대통령 취임
- 1981 전두환, 선거인단 통한 간접선거에서 제12대 대통령 당선
- 1974 검찰, 문인 지식인 간첩단 적발발표(이호철, 임현영 등 5명 구속)

1996 신연속 열사 추모일*
 1990 소련, 공산당 권력독점보장한 헌법 제6조 폐지
 1974 서울지방검찰청, 이호철 등 문인 지식인간첩단 사건 발표
 1971 스위스, 국민투표 거쳐 여성에 참정권 부여
 1969 이탈리아 노조, 전후 최대 파업

1996 민자당, 신한국당으로 당명개정
 1973 파월 백마부대 돌아옴
 1971 주한미군 감축과 국군현대화 골자로 한 한미안보공동성명 발표

1991 9개 시민단체,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창립
 1967 통합야당 신민당 창당, 당수에 유진오

1994 김순복, 손구용 열사 추모일*
 1989 북한산 무연탄 2만톤, 인천항으로 직수입
 1989 가정의례준칙 폐지
 1982 손재식 통일원 장관, 20개항 시범사업 북측에 제의
 1952 일본, 경찰 예비대 중심으로 저위대 창설

6

7

8

1999 미국 상원,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투표 부결
 1997 황장엽 북한노동당 비서,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 망명신청
 1991 제4차 남북체육회담
 1986 신민당과 민주협, 대통령직선제 개헌서명운동 시작
 1985 제12대 국회의원 총선, 신민당 돌풍
 1969 한일 협력위원회 발족
 1953 소련, 이스라엘과 단교

1998 최대림열사 추모일*
 1997 한상근열사 추모일*
 1994 김남주열사 추모일*
 1989 수세폐지와 고추전량 수매 등 주장하며 전국농민대회 중 경찰과 충돌
 1980 미국, 국제노동기구에 복귀 결정
 1971 재일동포 19만명 일본정부로부터 영주권 취득

1969 중앙정보부, 위장귀순간첩 이수근 체포발표
 1968 국회의사당 건립후보지역 여의도로 결정
 1948 공창제도 폐지

2000 뇌사 첫 인정
 1994 북한, 국제원자력 기구(AEA)와 핵사찰 수용합의
 1977 프랑스, 남아공에 대한 무기판매 중단
 1953 긴급통화조치령 발표, 통화개혁

13

14

15

1997 등소평, 93세로 세상 떠남
 1994 김상옥 열사 추모일*
 1992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평양서 열림
 1990 배주영 열사 추모일*
 1981 전남 영광에 원전7, 8호기 기공
 1977 증권감독원 개원
 1960 한미 투자보장협정 조인
 1969 영국-그리스-터키, 키프로스 독립협정에 조인

1993 채희문 열사 추모일*
 1991 송중호 열사 추모일*
 1987 김용권, 박선영 열사 추모일*
 1987 브라질, 외채 이자 90일간 지불유예 선언
 1985 구정을 민속의 날로 바꾸고 공휴일 지정
 1982 <칼 맑스의 생애> 등 이데올로기 서적 최초로 시판 허용
 1969 가정의례준칙 확정
 1968 향토예비군설치법안 국무회의 의결
 1947 인도독립

1986 중국 군용기 한국에 불시착
 1985 국제그룹, 경영부실을 이유로 해체당함
 1978 통일방직 사건발생*
 1974 이스라엘, 수에즈 운하서 철수
 1973 라오스 휴전조인
 1972 닉슨, 미국 대통령으로 첫 중국방문
 1954 휴전협정에 따른 중립국 포로송환 완료
 1949 반민특위, 친일파 대량검거
 1936 단체 신채호, 만주 여순감옥에서 세상떠남

1995 영국-아일랜드, 25년간 분쟁종식을 위한 평화인 공동발표
 1990 남북협력기금법 국무회의 의결
 1973 미국과 중국, 북경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설치 등 합의
 1958 신민법 공포

20

21

22

1993 청와대 앞길 개방
 1990 60세이상 이산가족 방북자유화 골자로 한 남북교류시행령 마련
 1988 논산훈련소 훈련병면회제도 29년 만에 부활
 1963 민주공화당 창당, 총재에 정구영
 1948 유엔소총회, 남한단독총선거 결의

1991 인천-목포간 서해안 고속도로 기공식
 1991 부시 미 대통령 걸프전쟁 종결선언
 1990 울진 원자력발전소 1, 2호기 준공
 1972 미-중, 상해공동성명 평화5원칙에 합의하여 국제적 테랑뜨 전개
 1967 불교계, 비구와 대처 분종 선언

2000 이동전화 가입자 2500만 돌파
 1987 강원도 화천댐 상류에 평화의 댐 공사 착공
 1966 국무회의, 국군 월남 증파 결의

26

28

29

■ 이달의 역사 - 2월

- 1 ● **김순복, 손구용**: 94년 2월 1일 UR재협상, 국회비준 거부, 농업대개혁 생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 참석을 위해 진양군 농민회 사무실에서 방승차량을 몰고가던 중 밀방관길에 미끄러져 충돌사고로 사망.
- 3 ● **남현진**: 한국외대 총학생회 사회부장을 지내는 등 학생운동을 하다, 1990년 11월 19일 군대 입대. 자대배치 며칠 후인 2월 3일, 부대 밖에서 목을 맨 시체로 발견. 군에서는 자살이라 발표. 그러나 훈련소 퇴소 후 자대를 배치 받은 10일 동안 행적이 묘연하고, 재학 중 총학생회 간부를 지냈음을 안 군사사기관의 조사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
- 4 ● **함석헌**: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을, 독재시대에는 민주운동에 헌신. 두 번에 걸쳐 노벨평화상 후보로 선정됨. 일제시대에는 창씨개명과 일본어 수업을 거부하여 오산학교를 사임당하였고, 동경에서 계우회사건으로 평양 대동경찰서에 1년간 복역하기도 하면서 독립운동을 벌인 선생은 1945년 해방을 맞아 고향에서 용암포 자치위원장, 용산군 자치위원장을 맡아 활동함. 1956년부터는 '사상계'를 집필하면서 1961년에는 5·16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5·16어떻게 볼까?'를 발표하였고, 1970년에 잡지 '씨알의 소리' 창간함. 1971년 삼선개헌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주호국민협의회를 조직하였으며 1974년 윤보선·김대중과 민주회복국민회의를 만들었고, 1979년 11월 23일, 명동 YWCA사건으로 계엄사에 끌려가 15일간 구속되기도 하는 등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다 1989년 2월 4일 운명.
- 5 ● **신연숙**: 수원2지구 철거민들이 1994년 12월 세입자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95년 골리앗을 건립, 8월부터 150여일간 고공농성 전개함. 96년 2월 5일 백골단 200여명과 철거반민 100여명이 골리앗에 기습적으로 진입. 그 과정에서 골리앗에 불이 붙어 투신, 운명함.
- 13 ● **최대일**: 98년 2월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와 근로자과건제 입법화가 합의되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에서 건조 중인 유조선 갑판위 25M위에서 분신 후 투신하여 운명함. 재벌자본과 정권의 음모에 맞서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하나로 단결하여 정리해고, 근로자과건법을 저지하라는 유서를 남김.
- **한상근**: 97년 용인대 총학생회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 산하 '대학종합평가인정제소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학생운동을 활발하게 벌이다 2월 10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시대의 아픔을 온 몸으로 호소한다며 분신함.
- **김남주**: 80년대를 대표하는 저항시인. 고교 재학시 입시위주 교육에 반대하여 자퇴. 대학 입학 후 3선개헌 반대운동과 교원반대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다 제적 후, 고향 해남에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시를 써서 등단함. 79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으로 투옥돼 80년대를 감옥에서 보내면서 우유갑이나, 휴지 등에 쓴 시들을 묶은 시집 '진혼가',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등을 통해 그 시대의 폭압적 현실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시들을 발표. 88년 12월 석방된 뒤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및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 등을 맡아 민족문화운동에 정열을 쏟음. 오랜 감옥생활과 석방 뒤의 괴로 등이 겹쳐 얻은 폐장암으로 운명.
- 18 ● **정삼을**: 88년 4월 결성된 단암, 동소문동 세대위가 1년동안 수차례의 강제철거와 충돌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전개함. 1989년 2월 18일 단암동 세입자 김성원씨 집 주인이 술에 취한 채 당장 집을 비우라고 소란을 피우자 김성원씨의 부인이 세입자대책위원회에 도움을 청함. 이에 달려와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하자"며 다가갔으나 집주인이 숨겨온 식칼에 가슴을 찔러 고대병원으로 옮겼으나 운명함.
- 20 ● **채희돈**: 인천 남일금속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부도 상황을 맞이하여 회사 정상화와 고용안정 확보를 위해 비대위 위원으로 헌신하다 회의 도중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사망.
- **송중호**: 포병부대에 배치되어 동계훈련 기간 중인 91년 2월 20일 새벽 3시에 이동식 상황실 안에서 벽면에 합판으로 목이 조인 옹크린 자세의 사

체로 발견. 군당국은 처음 자살로 발표하였다가 이후 안전사 추정으로 정정. 일시적 타격에 의한 심장마비 가능성과 눈가의 화상흔적과 몸 곳곳에 난 멍 등으로 미루어 학내활동과 관련된 타살 가능성.

- **김용권**: 1983년 서울대 경영학과 입학. 1985년 10월 카투사병으로 입대 후 의정부 소재 미 제 2중병사단에서 근무를 하던 중 86년 8월 3일 미 8사단 보안부대로 호출되어 서울대 민민주 관련 계보 요구 등 프락치 행위 강요. 87년 2월 20일 자신의 내무반 2층 침대난간에서 무릎을 꿇은 채 목을 매 죽은 상태로 발견. 미 군당국은 자살로 수사 종결하였으나, 목을 매어 죽은 사람이 무릎을 꿇은 상태일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프락치 강요를 받아오던 점 등으로 미루어 타살 가능성.
- **박선영**: 85년 서울고대 입학. 수학과 학회 편집부에서 활동. 학교측의 학회와 씨름 해체 조치 이후 교회 대학부 연합모임에 참가하면서 지속적인 활동 전개. 이런 현실에 맞서 마지막 투쟁을 자결로 표현하였으나, 학교당국은 이성관계에 의한 자살로 왜곡.
- 19 ● **김상옥**: 80년 서강대에 입학, 학생운동 전개. 4학년에 들어설 무렵 군입대를 하루 앞둔 3월 24일 시위 주도로 구속, 83년 12월 출소. 이후 노동운동에 투신 노조설립을 위해 싸우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석방 후 한 국민노동자연맹, 남부지역금속노동조합에 참여. 민족민주운동연구소 등에서 활동하였으나 위암으로 운명.
- **배주영**: 85년 경북 봉화여고에서 교직생활 시작. 87년 교사모임에 적극적 참여, 학교 소모임 건설과 청송교사협회의 창립을 위해 뛰어들었고 88년 12월 청송교사협의회가 창립되자 교협의 살림을 맡아보면서 활동하다 해직. 해직 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운명.
- 21 ●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다수였던 동일방직이 도시산업선교회 활동에 참가했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1972년에 여성 집행부로 구성된 민주노조를 설립하자 협박과 폭행, 부서이동, 사표강요와 같은 회사측의 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가 계속됨. 1976년 7월 23일 회사가 주도하는 불법 대의원회의에서 새 지부장을 선출하여 여성노동자들의 파업농성 야기. 사흘동안 계속된 노동자들의 농성을 폭력적으로 해산하던 경찰과 회사측에 노동자들은 나체로 저항하였으나 72명이 연행, 백여명이 부상당하는 등 노조와 회사의 충돌이 계속됨. 이후 동일방직 노조를 와해하려는 탄압이 본격적으로 자행되었고 노조수호와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들의 저항도 처절하게 전개되었다.



- 23 ● **수서비리 재수사 요구**: 수서, 대치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일반 주택청약 예금자들과의 형평에 맞지 않게 특정조합에 특별공급한 사건. 1991년 1월 21일 정치권의 압력과 한보 그룹의 로비를 받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수서지구의 민간 주택조합 소유토지 3만 5500평을 이들 조합에 특별 분양기로 결정함으로써 그들 조합원과 한보그룹에 특혜 제공.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던 중 91년 2월 3일 청와대와 평민당이 이 지구 분양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보낸 협조공문이 공개되면서부터 정치 쟁점화. 91년 2월 16일,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과 한보로부터 뇌물을 받은 오용운, 이태섭, 김동주, 이원배, 김태식 등 의원 5명이 구속되었으나 청와대 개입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수사 종결. 그러나 수서사건에 대한 검찰의 은폐축소수사 규탄과 국정조사권 발동 및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통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서울, 광주등지에서 열림.
- 24 ● **최명아**: 민주노총 조직부장 지냄. 98년 IMF 상황 속에서 민주노총이 재벌개혁과 고용안정을 위해 긴박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괴로 누적으로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짐. 2월 24일 운명.